



(ZULKIFLI HASAN(ZULHAS)통상부 장관... 땅그랑 소재 PT. PRATAMA ABADI INDUSTRI 방문, 네델란드발 나이키 신발 수출 출고식을 가졌다.

MONTHLY **KOFA**

코파의

잡지

Tel. 021-3002 9090,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Panunggangan Barat, Kec. Cibodas, Karawaci Tangerang 15139

Vol. **97**
2022/10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인도네시아 대외무역, 둔화될 조짐 없어



▲판중 뿌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의 8월 수출입 실적은 유례없는 물량 증가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보조금 지급 연료 인상의 영향을 잠재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 경제에 긍정적인 전망을 던졌다.

1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8월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0.15% 증가한 279억1천만 달러로 종전 최고치였던 4월 273억2천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팜원유(CPO), 금속, 전기기계 등이 주로 수출 증가를 뒷받침했다.

한편 수입은 기계 및 전기기계의 확대로 32.81% 증가한 221억5천만 달러로 같은 달 국내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1.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제조업의 호조를 나타냈다.

통계청 유통통계 및 서비스 담당 스티안토(Setianto)처장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판매량이 증가하여 핵심 상품의 수출 실적은 여전히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8월 무역수지 흑자는 57억6천만 달러로 전월(42억2천만 달러)보다 21% 급증하여 28개

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국영 만디리 은행과 금융조사 회사 무디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각각 예측한 무역흑자 예상치인 36억 9천만 달러와 44억 달러를 넘어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8월 월별 수출실적은 팜원유(CPO) 판매가 25.40% 증가한 데 이어 금속과 전기기계가 각각 14.38%, 2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피안토는 세계 원자재 가격이 전월 사상 최고가보다 낮았지만 일부 핵심 상품의 수출 물량이 8월에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팜원유 수출량은 전월 대비 55.77% 급증한 360만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지만 팜원유 가격은 t당 1,026달러로 10.15% 하락했다. 명목상으로는 지난 8월 팜원유 수출액이 37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요 수입국은 인도, 중국, 이집트 등이다.

한편 8월 석탄 수출량은 32.77t으로 전년동기대비 10.46%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 2.03% 감소했다. 가치 기준으로는 8월 석탄 수출액이 44억 달러에 달했다. 월별 가격이 5.35%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t당 290달러로 110.3%의 연간 가격 상승을 보였다.

금속 수출 가격은 t당 108달러로 전년대비 32.87%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23

억 달러, 물량은 135만 톤에 달했다. 전자, 기계, 광물은 비석유 및 가스 수입(Import)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이코노미스트 데이빗 사무엘(David Sumual)은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왔기 때문에 수입(Import)의 큰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팜원유 수출이 크게 급증한 것은 정부의 수출금지 면제 조치와 함께 새로 도입된 수출관세 인하가 마침내 세계 팜원유 수요를 촉발시켰다고 설명했다.

데이빗은 15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6월 이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천연가스 가격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만디리 은행 원자재 전문가인 아흐맛 주디 드위 쿠수마(Ahmad Zuhdi Dwi Kusuma)는 현재 해제된 석탄 수출 금지

해제된 지 몇 달 만에 수출량이 급증한 팜원유 수출 금지 해제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수출계약이 낮은 가격으로 다시 시작됐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팜원유가 수요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만디리 은행의 또 다른 이코노미스트인 파이살 라흐만(Faisal Rachman)은 인도 수요의 계절적 요인 외에도 외교 정책이 팜원유 수출 실적 증가에 한 몫을 했고, 중국이 7월에 인도네시아에서 100만 톤의 팜원유를 수입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파이살은 석탄의 경우 유럽의 겨울로 인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지만, EU 국가들이 비축 물량으로 대신 사용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은 물량 면에서 줄어들 수 있고, 원자재 가격에 하향 압력을 가할 글로벌 경기 침체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만디리 은행은 2022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0~0.4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제주도-인도네시아 직항노선 개설 등 경제통상 교류 협력

오영훈 제주지사, 메가와티 전 인니 대통령 면담

제주도와 인도네시아가 직항노선을 개설하는 등 경제통상 교류에 나서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17회 제주포럼 둘째 날인 15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일행을 만나 제주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항노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날 면담에는 올리 돈도캄베이 북부술라웨시 주지사와 간디 슐리스티안토 주한 인도네

시아 대사가 함께했다.

오 지사는 “제주감귤, 키위 등 제주산 농산물이 인도네시아 소비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품질 좋은 제주 농산물이 인도네시아에 수출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 지사는 또 “인도네시아와 제주 간 직항노선 개설을 위해 제주도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간디 슐리스티안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조만간 직항이 개설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주요 항구를 잇는 항로 연결을 통해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코코넛, 바나나, 망고 등 농산물도 다른 국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양 지역의 농수산물이 활발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



▲제주포럼서 만난 제주도-인도네시아 [제주도 제공]

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제주대학교와 다급바리와 불바리 등 ‘바리류’ 양식기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해양과학 분야에서도 양국 간 인적·학술적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i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통상부 장관 ZULKIFLI HASAN(ZULHAS)... 땅그랑 소재 PT. PRATAMA ABADI INDUSTRI방문



지난 13일 ZULKIFLI HASAN(ZULHAS)통상부 장관은 땅그랑 소재 PT. PRATAMA ABADI INDUSTRI(회장 : 서영률)를 방문해 네델란드발 나이키 신발 6,700 족 수출의 출고 출고식을 가졌다. 이번방문은 기존 통상부 실무관의 방문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ZULKIFLI HASAN(ZULHAS)의 직접방문, 출고식을 가진것으로 한인 신발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지역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진것으로 보인다. ZULHAS에 의하면 이번 수출액은 \$ 211,518 또는 31억 루피아(환율 14,800)로 BANTEN 주 TANGERANG SELATAN SERPONG 에 위치한 나이키 공장중에 하나인 PT. PRATAMA ABADI INDUSTRI 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격려했고 “나이키 생산 공장인 프라따마에서 생산되어 네델란드로 수출하는 \$ 211,518 상당의 신발의 수출 출고식에 참석하여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정부는 이노동 지역적인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ZULHAS는 신발산업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산 의류에 이르기까지 해외 수출을 활력있게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ZULHAS는 향후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간의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IUSE - CEPA) 이후 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이 확대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으며 유럽은 자동적으로 나이키 시장이 되고, 중동은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므로 새로운 허브를 구축하면 UAE를 비롯해 중동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 아시아까지도 진출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IUSE - CEPA)는 신발, 의류 그리고 타생산품에 대해 무관세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본다고 했다. PT. PRATAMA ABADI INDUSTRI 서영률회장은 33년전 부터 남부 땅그랑에서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PRATAMA ABDI IDUSTRI 는 임직원과 근로자간 화합된

힘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고 현재 타지역에 4개의 공장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중 하나가 SUKABUMI공장 이라고 하였다

PT. PRATAMA ABADI INDUSTRI 직원수는 약 4만명이고 2021년에 월 360만족을 생산했으며, 수출액이 5억 5천만불에 달하는 글로벌기업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기업으로 주목 받고있다.

또한 서영률회장은 수출확대를 위해 계속 성장 할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일자리가 계속 창출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 드린다” 라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PT. PRATAMA ABADI INDUSTRI는 한인 동포사회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하는 귀감을 보여왔으며 현지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또한 유연한 관계로 만들고있어 한인기업의 모범이 되고있다.

편집부

PT.PRATAMA ABADI INDUSTRI 지역별 공장 전경



Tangerang 공장



Brebes 공장



Sukabumi 공장



Garut 공장

Pratama PT. PRATAMA ABADI INDUSTRI

튼튼한 징검다리

개천 같은 데에 돌덩이나 흙더미를 드문드문 띄어 놓아 그것을 디디고 다니게 하는 다리를 징검다리라고 한다.

PT. PRATAMA ABADI INDUSTRI는 고국을 떠나 이방땅에서 삶의 터전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동포의 징검다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지 않는 참된기업으로 참된 성장을 할 것입니다.

Address:

Jl. Raya Serpong, KM. 7, Tangerang, Banten 15310, Indonesia
Telp. : (021) 539 6140
Email: info@pratama.net

지난 16일 땅그랑 시장(AH-MAD ZAKI)과 반튼 주지사(AL MUKTABAR)는 땅그랑 소재 한국신발기업 KMK(회장:송창근)를 방문해 점점 높아지는 반튼주, 땅그랑시의 실업률을 해소할 위해 한국신발기업의 중부자와 이직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논의가 KMK 미팅룸에서 있었다

이날 미팅에는 땅그랑 시장(AHMAD ZAKI)과 반튼 주지사(AL MUKTABAR)를 비롯해 KMK송창근회장, 제인니한국신발협회(KOFA) 이종윤회장, 박길용 사무총장등이 참석해 진솔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

실제 한인 신발기업은 반튼주에서 중서부 자와 (마젤랑카, 짜레본, 브르브스 지역) 및 중부 자와(스마랑 저빠라, 살락 띠가)로 지속적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용촉진법 시행과 이에 반대되는 노동조합의 개입으로 임금협상 타결의 어려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강성노조로 인한 잦은 데모등으로 인해 신발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 한국 신발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사업체를 옮기지 않고, 반튼주에 오랫동안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땅그랑 시장, 반튼주 주지사 KMK방문 ... 높아지는 지역 실업률 타개방안 논의

송창근회장은 과거의 반튼주는 신발제조, 다양한 산업, 교육, 자카르타 근교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UMK가 120-125% 높아지며 산업 경쟁력이 낮아지고 많은 공장들이 중부자와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이러한 현실은 도미노 효과처럼 많은 공장들이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부자와로 옮겨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Employment Incentive Program이라는 전략을 건의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기업의 직원 수에 따른 인센티브로 직원의 급여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며, OH가 다시 낮아짐에 따라 바이어 또한 기업에게 안정적인 오더를 주며 서로 트리플 윈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송창근회장의 제안에 반튼 주지사와 군수의 입장은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었다. 특히 군수는 다음주 화요일 정부회의에 이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건의해 보겠다고 했고 매년 파푸아와 다른 지역

에서 땅그랑으로 수만명의 인구유입이 되고 있지만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시장과 주지사는 통계자료를 보여주며, 공장들이 중부자와로 넘어갔던 2019-2020에 실업자 수가 8.91%에서 13.06% 급증했다고 했다고 하며 당면한 현실의 우려를 표했다.

송창근회장은 만약 예산책정이 어렵다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임금을 유지 시키는 것을 건의했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정부예산을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금을 유지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현재 반튼주와 땅그랑시의 어려움을 인지시키고 이런 제도가 상호상생 할 것이라는 호소를통해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땅그랑 시장(AHMAD ZAKI)과 반튼 주지사(AL MUKTABAR)는 현실적인 조언과 의견을 공감하며 신발산업의 이동 사유와 같이 다른 산업



도 반튼에서 많은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것을 잘 알고있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경제성장률도 내려가고, 극빈층도 증가하고 있음을 잘 알고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 하겠다고 했다. 향후 세부적인 미팅시에 반튼 주, 땅그랑 시가 고용을 안정시키고, 신발 산업 또한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와 조언을 바란다고 했다. 관련된 현안미팅은 매주 진행하며, 프로젝트의 목표 데드라인은 11월로 잡았다.

편집부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루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펜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SINCE 1969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노통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석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Tel : 021.5980.222 / 5982.666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Fax : 021.5984.666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I.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06
JI.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PT. YUSUNG JAYA ABADI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x 35mm
2. 25mm Trimdek
1040mm x 25mm
3. 35mm Spandek
920mm x 35mm
4. Bot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x 110mm
5. Bottless-Seaming Type 55mm
736mm x 55mm
6. Genteng Metal (기 외)
82mm x 35mm x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절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청귤 병귤, 아니 풋귤

청귤(靑橘)은 귤속(橘屬)의 제주도 원산인 재래 귤이다. 열매를 맺으면 다음해 여름에 노랗게 익었다가 다시 파랗게 변하는 귤이다. 파랗다가 노랗게 되는 것이 아니다. 조선조에는 매우 귀해서 약재로 사용했는데 이제 상업용으로는 재배하지 않는다. 요즈음 청귤이라고 파는 것은 다 상업성이 없는 일반 귤의 미숙과를 청귤이라고 속여서 파는 것이라 하니 청귤이란 말이 맞거나 한 것인지 모르겠다. 파는 사람이 8~9월, 한 달 정도만 나는 것이라 주문받고 판다기에 팔랑귀가 되어 덜렁 한 박스 주문을 했다. 원래 말하는 청귤은 아닌 것이다. 나중에 천천히 보니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쓰지 않았고 주문받아 농장에서 바로 따 보낸다고 '무농약 산물 인증서'를 찍어 보이는데 인증기관이 듣도 보도 못한 곳이다. 청귤(풋귤)이라고 표기하는데 풋귤이면 풋귤이고 청귤이면 청귤이지 청귤(풋귤)은 무엇인가?

주문해 놓고는 인터넷에 찾아보니 미숙과라고 조그마하게 밝히는 사람들이 많다. 많이 달려 속이 버리는 것도 있을 것

이다. 사진의 색은 푸르다 못해 검을 정도로 짙어 올렸는데 그림 프로그램으로 색을 입힌 것 같다. 제주도에서는 크기가 너무 작은 것과 너무 큰 것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말이나 온 김에 한마디 하자. 겨울에 파는 밀감, 따서 푸른 대로 보내 주면 좋겠다. 미리 띄워 노오랗게 익혀 보내니 사 놓고 며칠 두면 썩어 버리는 것이 많다. 아깝지 않은가? 밀감을 씻어 까먹고 그 껍질도 갈아 마시거나 달여 마시면 안 될까? 그런데 잔류 농약이 두렵다. 깨끗이 없애고 껍질차를 해 먹으려면 어찌 하면 되는가요?

위키 사전에 보니, 청귤은 12월까지도 열매가 파랗고 3월이 되어야 열매가 익어서 청귤이란 이름이 붙었다. 병귤처럼 맛은 새콤달콤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품종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야생한 단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동의보감에 그 약효와 효능이 적혀있다. "병귤은 제주도 재래감귤의 하나다. 기원은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유전적으로 동정귤, 빈귤, 청귤, 편귤, 홍귤과 가깝고, 동정귤과는 형태학적으로 다르나 유전적으로 99%의 유사

도를 보인다. 병귤은 종자번식용으로 재배되어 왔으나 다른 재래감귤과는 달리 유일하게 독립된 개체로 유지되어 온 품종이다. 병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병귤(瓶橘)이란. 형태가 한라봉과 유사하게 생겼다. 병귤이라는 제주도 재래품종이 있었지만 상품가치가 높은 일본 품종이 한라봉이란 이름으로 제주도의 명물이 된 것이다. 이후 이런 유사한 품종들의 접합으로 다양한 귤이 나오고 있다.

지리산골에서 자란 나는 유자(柚子)도 귀하여 보기 어려웠으니 귤이란 아예 구경을 못하고 자랐다. 대신에 자자 돌림으로는 탕자가 있었다. 귤화위지(橘化為枳)라는 말이 있다. 궤도 척박한 땅에서는 궤로 자라지 못하고 탕자가 된다는 비유다. 탕자가 궤보다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덜 익어 푸른 탕자를 따서 썰어 말려 한약재로 쓴다는 것은 알았지만 나는 노랗게 익은 열매가 시큼하여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그 즙을 빨아 먹는 것을 즐겼다. 그러나 가시가 역세고 많아 탕자를 따는 것은 어려웠다. 탕자도 꽃이 피면 나는 등마는 등 하는 수수한 향기가 발길을 끌어 탕자울타리 집 앞을 자주 서성거렸다. 그 집 딸 순이 때문은 아니었다.

풋귤인지 청귤인지 푸른 것이 도착했다. 식초를 푼 물에 담가 한참을 두었다가 행구어 물기를

말렸다. 궤로 까먹기에는 껍질이 단단하며 성가시게 작고 시다. 썰어 말리려면 일손이 많이 가고 건조기도 없어 궁리 끝에 갈아서 효소를 만들기로 했다. 믹서를 사야 했다. 큰 유리통을 사야 했다. 흑설탕을 샀다, 흑시 몰라 30도 담금 소주도 한 병 샀다. 믹서에 넣기 위해 일일이 꼭지부분을 잘라내고 두 동강을 냈다. 물을 부어야 믹서가 돌아가니 부피가 늘어났다. 온통 일요일을 저당 잡히고는 뭐하는 일인가 싶다. 유리병에 덜어 담고 위에는 설탕을 부어 공기를 차단하니 썩지는 않을 것이다. 발효 중에 부피가 늘면 흘러넘칠 것이다. 덜어 담아야 한다. 여러 병에 들어있는 이것을 언제 다 먹지?

아는 사람이 청귤 속을 파내고 덕은 녹차 잎을 쟁여 넣고 칭칭감아 발효시켜 청귤차를 만든다. 명인이다. 하나를 얻어 달여 마시니 특이한 맛이 난다. 이것 명품이다 싶었는데 만들어 먹을 것이 아니라 사 먹는 것이 간소하게 사는 것이다. 안 살 믹서를 사고 자리를 차지하는 큰 유리병들, 독한 덧병 소주, 청귤에 버무릴 설탕,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까? 뜻밖의 일을 저지르다 보니 사랑과 희생이신 우리 장모님 생각이 난다. 큰 냉장고가 2개, 큰 덩채가 2개, 집안 장독엔 멸치를 삭혀 젓국을 내리고 메주를 쑤어 만든 된장과 고추장이 있었다. 김장을 많이 해서 아들 딸내 집에 배급



조기조

하셨습니다. 딸과 며느리들이 편했을 것이다. 모두들 맛있다 하니 이웃에도 나눠 먹었다. 즐거워는 하시지만 힘 드는 일 아니었겠는가. 세월이 흐르니 모두 옛이야기가 되었다. 청귤 아닌 풋귤효소가 잘 익으면 누구랑 뜨끈하게 끓여 마시지? 풋귤이라 하니 풋풋한 풋사랑이라도 있었다면 좋았겠다.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인니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퇴출…선진국 투자 필요”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공개…2025년까지 23%로 늘리기로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인도네시아가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기할 방침이라며 선진국들에 830조원 규모의 투자를 요청했다. 15일 자카르타 글로브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전날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 계획을 공개하면서 2050년까지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2060년 탄소 중립국에 도달하겠다고 하며 이를 위해 2056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퇴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보다 6년 앞당긴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전력 생산에서 석탄 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다. 이번 계획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건설할 수는 없지만 이미 건설 중인 석탄 발

전소와 천연자원 처리 산업과 통합된 석탄 발전소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10년 이내에 2021년 기준 35%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총 6천억 달러(약 837조원)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채권 발행에 의존하기보다는

선진국의 투자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라며 “투자가 들어와야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 12% 수준에 불과한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도 2025년까지 23%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영기업들에 70만ha(헥타르 · 1ha=1만m²) 면적의 사탕수수를 이용해 에탄올을 생산하도록 했다. 또 석탄을 이용해 디메틸에테르(DME)를 생산하는 것도 3~4년 내 달성하기로 했다. DME는 석탄을 열분해해 추출한 것으로 액화석유가스(LPG)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이산화탄소와 분진 발생이 적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꼽힌다. [연합뉴스]

틈스 목금형(틈스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틈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틈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 //www.bslaser.com

Steel Laser Cu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4@korea.com
http://www.bs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틈스금형, 특수 칼금형

개헌 · 대선 연기설 돌던 인니 대통령, 이번엔 부통령 출마설 “조코위, 3연임 불가능하지만 부통령 출마는 위헌 아니야”



▲전통 의상을 입은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수도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 페이스북]

3선 개헌과 대선 연기 등 무성한 추측이 나돌던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놓고 이번에는 다음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정계에서 나오고 있다.

15일 일간 콤포스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이 속한 투쟁민주당(PDI-P)의 밤방 우르안토 선거 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조코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3회 연속 대통령이 되는 것은 개헌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지만, 부통령으로 나선다면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밤방 위원장은 “조코위 대통령이 원하면 할 수 있다”라며 “그가 부통령으로 나오길 원하는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선거에서 투쟁민주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총재가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메가와티는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의 딸이자 2001~2004년 5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현재 여당 총재로 인도네시아 정계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도 조코위 대통령의 핵심 후원자 역할을 했다.

그는 다음 대선에서 자신의 딸이자 현재 인도네시아 하원 의장인 뿌안 마하라니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싶어 하지만 뿌안의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다.

이 때문에 메가와티가 조코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하기 위해 뿌안과 조코위를 각각 대통령·부통령 후보로 출마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코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야당에서도 나온다.

그린드라당의 하비부르크만 부총재는 조코위 대통령이 그린드라당 대선 후보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 장관의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다며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를 32년간 철권통치한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로

군장성 출신이다. 그는 2014년과 2019년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맞붙어 모두 패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한 뒤 프라보워의 협력을 요청하며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프라보워는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지만 지난달 그린드라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조코위 대통령을 대선에 끌어들이려는 것은 임기 후반을 맞고 있는 그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 기관인 인도네시아 조사연구

소(LSI)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은 72.3%에 이른다.

이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3선에 도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을 이유로 2024년 2월로 예정된 대선을 1~2년 뒤로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조코위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겠다”며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TKG태광, 인니서 제3공장 3만5000명 전원 정규직 고용 예정

TKG태광(구 태광실업)의 인도네시아 법인 ‘TKG태광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스라겐주 타논 보나궁마을에 신발공장을 건립할 예정인 가운데 TKG태광 인도네시아측은 계약직 없이 3만5000명의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태광 인도네시아 투자자 대표는 현지 기자들에게 대다수 공장이나 다른 업체와 달리 태광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3개월의 수습교육만 받으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말했다. 급여는 지역구 최소 금액 이상의 임금을 시작으로 정규직으로 임용되면 매년 급여가

인상되고 휴일수당·초과근무·법에 정해진 다른 권리들에 적용된 각종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40헥타르(약 40만㎡)의 면적에 3만5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2025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회사 사원들을 위한 지역시설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TKG태광 인도네시아법인이 현재 짓고 있는 스라겐 공장은 서자바 수방공장과 서자바 쥘레본 공장에 이은 세번째 공장으로 앞선 두개의 공장을 확장한 것이다. 수방 1공장의 지원을 주업무로 하게 되며 TKG태광이 나이키 단일 거래처로 신발을 제조해 왔던 만큼 새로 짓게되는 공



▲TKG태광 인도네시아의 제1공장인 수방공장. 사진=TKG태광 인도네시아

장의 생산물량도 전량 나이키에 납품될 것으로 보인다.

TKG태광은 태광실업이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1980년 설립되었다. 2022년부터 이름을 TKG태광이라 변경하였으며 TKG태광은 TKG태광그룹의 모체로 신발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생산량 전량을 나이키에 납품하고 있으

며 나이키 전체 물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본사 1000명에 국외공장 직원들을 합하면 총 7만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기준 2조3000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180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다.

글로벌이코노믹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인도네시아 산업, 높은 에너지 및 재료 가격에 어려움 겪어



▲2021년 9월 21일 조코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영제철소 크라카따우 스틸의 제2 열연공장을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기동을 공식화했다.(사진=인도네시아 대통령비서실/ Laily RE)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공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일부는 높은 투입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석유에 대한 저렴한 대안으로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1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밥비 가푸르 우마르(Bobby Gafur Umar) 부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업들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생산원가가 불가피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밥비 부회장은 현재 제조된 많은 상품들은 일찍이 국내에 들어온 투입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지난 몇 달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했지만, 앞으로 생산되는 상품들은 원재료와 반제품의 재고를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더 받기 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7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확장 계획이 현재 보류 중이기 때문에 정부의 연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실현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예상보다 높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가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은 이달 초 정부 보조금과 일부 비보조 휘발유 가격을 약 30% 인상했다.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제한하고 가격 상한선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경유 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8월 세계 평균 유가는 배럴당 96달러(bb)로 1년 전보다 약 39% 올랐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영국 열단위(mmbtu)당 70달러로 3배 이상 뛰었다. 밥비 부회장은 이미 산업부와 논의를 했고, 그 수치는 여전히 계산되고 있지만, 연료 가격 인상으로 일부 산업은 비용이 5~10%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수단과 별개로 산업지구 내 대부분의 사업체가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자체 발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전기 비용도 동시에 증가했다고 말했다. 철강 생산을 위해 석탄을 원재료로 소비하는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6월 기준 석탄 가격(HBA)은 t당 323.9달러로 2009년 정부가 HBA 추적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정부는 기준 가스가격(HGBT)을 mmbtu당 1에서 7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밥비 부회장은 철강업체들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어, 일부는 항구 근처로 이동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브카시에 남아 운송비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국이 산업체들에게 안정적인 전기와 천연가스 가격을 보장하면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국영 시멘트 생산업체인 세멘 인도네시아(PT Semen Indonesia)의 홍보부장 비따 마레니(Vita Mahreyni)는 석탄과 다른 에너지원이 생산 비용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이 석탄 가격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석탄 가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세멘 인도네시아는 녹색 에너지의 점유율을 높이고 폐기물 연료뿐만 아니라 저열량 석탄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밝혔다. 크라카따우 철강(PT Krakatau Steel) 실미 까림(Silmy Karim) 사장은 국영 철강회사가 여전히 세계 에너지 가격에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산업체의 전기 가격은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아네카 가스(PT Aneka Gas Industri) 라흐마트 하르소노(Rachmat Harsono) 사장은 가스 유통업체가 그리드 전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전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추가 비용의 일부를 고객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며, 수년 전에 석유와 가스 처리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독립할 수 있었으나, 지금 이런 시설들을 짓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정부가 재래식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니켈 매트 생산업체인 발레 인도네시아(PT Vale Indonesia)도 고유가에 대응해 대체 에너지 투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발레의 재무 책임자인 베르나르두스 이르만토(Bernardus Irmanto)는 높은 에너지 가격이 생산 비용에 대한 압력을 확실히 가중시켰지만, 회사는 석유

나 석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중 버너 건조기를 운영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레 인도네시아는 265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소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니켈의 높은 가격을 감안할 때 마진은 플러스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국영 만디리 은행의 에너지 전문가인 아흐맛 주디 드위 꾸수마(Ahmad Zuhdi Dwi Kusuma)는 산업체가 증가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이지만, 기업들이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면 재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2022 한국문화의 달, K-Festival 대면 개최

케이팝, 공연, 전시, 한식에 이어 소비재 홍보까지

2022 한국문화의 달 행사가 오는 9월 15일(목)부터 11월 20일(일)까지 자카르타, 반둥, 족자카르타 등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다. 2022 한국문화의 달은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카르타무역관,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사, 아시아나항공과 CGV 인도네시아 및 문화예술총연합회(문예총)가 협력하여 문화·예술·관광·콘텐츠·한식·상품 등 7개 분야에서 20여개의 행사를 선보인다. 개막식 첫 공식행사로 9월 16일(금) Ciputra Artpreneur Theater

에서 국립 부산국악원 초청 〈Lagu & Tari Tradisional Korea〉 전통공연이 펼쳐졌다. 자세한 내용은 유관기관별 소셜 미디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문화원 제공]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자카르타 GBK Arena 건물 8층 엘리베이터에 내리는 순간 후끈한 열기와 공간을 울려 퍼지는 함성들이 들려온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에 많은 동아리와 모임들이 있지만 가장 화끈하고 역동적인 스포츠인 농구 동아리 BBJA(Basketball Jakarta)를 소개하고자 한다.

BBJA(회장:강수한)는 고3부터 50대에 이르는 폭 넓은 연령대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들은 학생부터 주재원,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CEO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농구를 좋아하는 열기는 하나같이 뜨겁다.

현재 자카르타, 씨까랑, 땅그랑, 보고르, 까라왕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중부자와 등 지역별 농구를 좋아하는 동포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운영진은 현재 회장, 총무 2명 및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매주 정기 경기를 위한 일정, 섭외 등을 소홀함 없이 일뜰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

과거 80년대, 90년대 한국의 농구 열풍에 힘입어 길거리농구, 1:1농구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은 젊은이들이 즐기던 운동이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에서 농구클럽을 만들어 운영하고 함께 운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당장 농구코트도 부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약과 대관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구를 사랑하고 즐기는 청년들에게는 아련 열악한 환경조차 문제되는

게 아니었다. BBJA(Basketball Jakarta)의 창단배경은 자카르타 유학생이었던 선배들이 성인이 되어 다시 모여 같이 즐겁게 농구를 해보자는 취지로 농구를 좋아하는 젊은

시~10시 자카르타 GBK ARENA 8층에서 2시간동안 농구경기를 2팀씩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 방식은 매주 2경기 45점 승부로 진행하고 있고 매 시즌은 10승을 채우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한 BBJA(Basketball Jakarta)를 잘 이끌어 성장시켜 나가고 타 지역의 활성화에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 한인 단체에서의 후원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조명받지 못한 비인기 종목의 동아리이지만 향후 여성, 청소년, 청년, 중년층의 탄탄한 팀을 만들어 한인 동포사회 에너지의 원천이 될 것으로 본다

회원가입, 후원금 문의 : 0813 8159 7615(전상원)

땀 뚝뚝, 정열과 열기 후끈, 젊은 에너지 화끈 ... BBJA(Basketball Jakarta)



친구들을 모아 2011년 3월에 창단했다. 초기 설립시 5명의 인원으로 출발해 현재 동아리 단독방에 들어와 있는 인원은 56명이며, 매주 동아리 참석하는 인원은 20~25명 정도이다. 회원은 상시 모집 중이며, 인도네시아 유일의 농구 동아리로 인도웹에 등록하여 공식적인 한인 운동 동아리로 활동 중에 있다. 정기모임은 매주 목요일 저녁 8



10승 달성시 새로운 시즌으로 진행된다. 특별한 수익이 없는 BBJA는 매우 높은 대관료와 경기를 위한 소요예산을 소정의 회원을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당장 유니폼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운동이라 경기시 필요한 음료등을 충당할 예산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회원들 개개인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정기적으로 치르고있는 한

일전을 통해 한인들끼리의 단합과 한일 친선을 도모하고 있어 동아리활동의 의미를 더 해주고 있다. 강수한회장 이러한 활동을 통해 BBJA(Basketball Jakarta)농구 동아리가 보다 더 활성화 되어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이 함께 땀 흘리며 즐겁게 농구하는 동아리로 발전해 나갈 기대한다고 했다. 농구는 다소 격렬하고 동적인 운동이지만 타 운동과 달리 코트속에서 팀웍을 다지고 순발력과 지구력을 다지는 운동이다. 특히 한인 동포의 2세대층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연령층이므로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 찬 Hp : 0812 9512 8990
현지인 Hp : 0857 7752 7542
Hp : 0812 9012 2019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0 No. 90,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pusat_BGT@yahoo.com

아라소프트, 인도네시아에 ESG사업 수출 발판

주요대학 2곳서 10일간 IT 현장교육...소프트웨어 기술 수출 교두보 마련
강정현 아라소프트 대표 "대한민국 IT기업 印尼시장 진출위한 첫 발걸음"



▲아라소프트가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협력 하에 지난 14일까지 10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디지털정부 구축을 위해 필요한 DX IT 기술을 전수 시켰다. 아라소프트 제공.

아라소프트가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협력 하에 지난 14일까지 10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디지털정부 구축을 위해 필요한 DX IT 기술을 전수 시켰다.

또한 인니 교육계의 탄소배출·종이사용 절감,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대학교수·교직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아라소프트가 개발한 전자책 저작 도구 '나모오서 NamoAuthor' 사용 방법을 직접 교육했다.

글로벌 ESG사업 일환인 이번 IT 관련교육은印尼정부의 저탄소·페이퍼리스(Paperless)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아라소프트는 전자책 저작도구(나모오서 NamoAuthor) 라이선스 100

카피(USD 4만)를 인니 정부와 교육계에 기증하는 한편 동부자바 소재 주요 대학 2곳에서 기술진이 직접 '나모오서'를 통해 디지털 문서편집과 전자책 저작을 하는 IT기술을 현장 교육했다. 이와 관련 KOTRA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에 아라소프트의 전자책 저작도구 '나모오서 NamoAuthor' 수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이다.

아라소프트는 이번 IT 현장교육을 KOTRA 관계자들과 함께 1차로 지난 5~9일까지 수라바야市 ITS 대학교에서 진행하였고, 2차 교육은 12~13일까지 말랑市 Marchung대학교에서 진행했다. 현지 협업기관으로는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투자청(Investment board of East Java Province)과 ITS 대학교(Institut Teknologi Sepuluh Nopember), Ma chung 대학교 등이 협력했다.

아라소프트는 지난 14일 오후 Tunjungan Plaza 3, 6층 컨벤션 홀에서 인니 동부자바 최대 투자행사인 '2022 East Java Investment Week' 와 연계해 나모오서(NamoAuthor) 100카피 현장 기증식을 가졌다. 한편 아라소프트와 인도네시아 정부(동부자바 투자청) 및 대학 등은 아라소프트가 최근 개발 성공한 세계 표준

전자책 플랫폼 '아라북'을 공동 운영하는 것도 합의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현지에서 '아라북' 플랫폼에 접속해 각종 정부 자료와 책자 등을 직접 영어와 인도네시아 등 현지 언어 등으로 저작 등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라소프트는 이번 기간에 아라

소프트-인도네시아 정부-교육계의 3자간 기술교류 및 상호협력 MOU 3건을 체결하는 등의 큰 성과도 거뒀다. 인도네시아 현장을 방문해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대학들과 MOU 체결을 직접 주도한 강정현 대표는 현지에서 "대한민국 IT기업인 아라소프트사가 인도네시아 문서저작 소프트웨어 시장 수출을 위한 선점을 한 것으로,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큰 성과로 본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 등과의 상호협력 MOU 3건을 체결하는 큰 성과 역시 KOTRA 관계자들의 협력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

특히 문서와 전자책 저작도구 '나모오서' 기술 개발과 전자책 플랫폼 '아라북' 개발에 전폭적인 협력 지원을 한 경남테크노파크 노충식 원장과 관계자들의 노력도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준성 KOTRA 수라바야무역관은 MOU 직후 "ESG는 글로벌 소비자들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KOTRA 글로벌 ESG사업을 통해 수출과 지역사회 공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마루고, 재생 데님을 사용한 일본 전통 다비형 슈즈 'tabiRela(타비리라)' 수량 한정으로 발매

구라시킴시 고지마의 데님 제조회사 ITONAMI의 프로젝트와 콜라보

작업화전문회사인 마루고(丸五)는 인기 상품인 'tabiRela(타비리라)'의 어퍼에 회수 데님 프로젝트를 'FUKKOKU'의 재생 데님을 사용한 지속가능한 슈즈를 직영점 한정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이 회사는 SDGs 활동의 일환으로 오카야마현 구라시킴시 고지마(岡山縣 倉敷市 児島)의 데님 제조회사 ITONAMI가 실시하고 있는 데님 회수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된 업사이클 데님을 사용한 제품을 개발했다.

필요 없어진 데님을 회수해 분쇄한 다음 바늘 모양 도구로 직조 짜임을 풀어 보풀로 만든 후 면 또는 털 상태의 단섬유로 되돌린다. 이후 면 상태의 오가닉 데님

과 섞어 몇 번의 공정을 거쳐 한 줄의 실로 만든 다음 새 데님 천을 만든다. 방식은 이 프로젝트의 이념에 공감한 구라시킴 방직이 담당하고 있다.

프로젝트 시작 당시의 목표 회수 데님 수가 1,000개였다. 일본 전국으로부터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 최종적으로 4,000개의 데님이 모였다고 한다. 혼방률과 종류가 다양한 데님이 모였기 때문에 작업 전 분류 작업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한다.

제품명은 'tabiRela(타비리라) ITONAMI DENIME'이다. 마루고의 구라시킴에 있는 자사 공장에서 생산되는 "made in KURASHIKI"의 제품으로 가격은 9900



▲ TabiRela(타비리라) ITONAMI DENIME 9900엔(소비세 포함)/어퍼에 재생 데님을 사용한 다비형 슈즈. 컬러는 깔끔한 스틸 블루.

엔(소비세 포함)이다. 걷기 편하고 발 건강에도 좋은 다비형 슈즈로 인솔에는 면 100% 자수를 사용해 맨발로 신어도 쾌적하다. 겹쳐서 접으면 6cm 정도 두께가 되므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해 여행지의 세컨드 슈즈로도 추천한다. 사이즈는 220~260mm(10mm 단위).



LED등의 모든것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가격!



Jakarta Office

Plaza Kenari Mas
Jl. Kramat Raya No. 101, RW.1, Paseban,
Kec. Senen,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440
Telp:+6221-3104414

Cikarang Warehouse

Jl. Industri Utara 4 Blok SS 6B
Kaw. Industri Jababeka Cikarang,
Ds. Mekar Mukti Kec. Cikarang Utara,
Kab. Bekasi 17520

Contact Person

kimsk@ptdaehwa.com
0815-1902-4272
shkim@ptdaehwa.com
0811-174-711

LED TUBE T8 18W

Price Rp. 60.000
Lumen : 2100 Lm
CCT : 6500K
INPUT POWER : 1 Sisi / 2 Sisi

LED Highbay 100W/150W

Price 150W Rp. 1,400,000
Waterproof Class : IP65
Power factor : 0,95
CCT : 6500K

LED FLOODLIGHT 100W/150W/200W

Price 150W Rp. 555,000
Voltage : AC 180 - 260 V
Waterproof Class : IP66
CCT : 6500K

LED STREETLIGHT 90W/120W

Price 120W Rp. 1,500,000
Waterproof Class : IP65
Luminous Efficiency : 110 lm/W
Power : 120W
CCT : 5700K

LED DOWNLIGHT 6W/12W/18W

Price 12W Rp. 60,000
Power : 12W
CCT : 6500K

LED FLAT LIGHT 48W 60X60/120X30

Price Rp. 400,000
Size : 60x60 / 120x30
CCT : 6500K

MCM, 푸마와 협업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클래식의 재해석”



MCM은 스포츠 브랜드 푸마와 함께 하이엔드 감성의 한정판 스니커즈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컬래버레이션 제품은 푸마의 클래식 풋웨어 라인에 MCM을 상징하는 디테일을 더한 제품이다. 농구화 특유의 스포티한 감성과 화려한 디자인이 특징

세상에 단 하나뿐인 MCM 에디션으로 거듭난 ‘푸마 슬립 스트림 Lo’ 제품을 오는 8일 선보인다. 두 번째 ‘쇼 업(show Up)’은 다음 달 출시 예정이다. ‘푸마 슬립스트림 Lo’의 블랙 및 화이트 디테일에 MCM의 화려한 큐빅 모노그램 장식을 더해진 독보적인

이다. MCM과 푸마의 협업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컬렉션은 세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먼저 ‘쇼 러브(show Love)’는 세상이 단 하나뿐인 MCM 에디션으로 거듭난 ‘푸마 슬립 스트림 Lo’ 제품을 오는 8일 선보인다. 두 번째 ‘쇼 업(show Up)’은 다음 달 출시 예정이다. ‘푸마 슬립스트림 Lo’의 블랙 및 화이트 디테일에 MCM의 화려한 큐빅 모노그램 장식을 더해진 독보적인

스타일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공개될 제품은 경기장에서 활약하던 클래식 아이템을 화려하게 재해석한 제품으로 내년 상반기 공개 예정이다. 레디투웨어와 매력적이고 독특한 에디션으로 거듭난 푸마 TRC 블레이즈 코트 슈즈 등이다. MCM과 푸마의 컬래버레이션 제품은 8일 한국에서 첫 출시 이후 10일부터는 전 세계 일부 푸마 매장과 럭셔리 유통 파트너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푸마 슬립스트림 Lo’는 국내에서는 무신사에서만 단독 판매되며 무신사 래플 이벤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아시아경제]

日 아식스, 세계 최저 온실가스 배출 운동화 개발



일본 아식스가 생산 단계에서 세계 최저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운동화를 개발했다. 16일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은 아식스가 내년 수송부터 폐기까지 총 1.95kg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운동화를 출시한다고 보도했다. 아식스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운동화는 4.3kg다. 해당 제품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소재를 사용하는 한편 생산공장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투입했다. 아식스는 이 같은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대거 줄이는데 성공,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신발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아식스는 지난 2012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와 공동 연구를 진행해 제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법을 확립했다. 제품 사이클을 △재료 조달·제조 △수송 △사용 △폐기 4 단계로 구분했다. 아식스는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층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른 신발 제품군에도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번 제품 판매 가격은 150달러(약 20만9500원)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전자신문]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터서

콤프레터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 기존 인버터 타입 모델 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FYH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하이브리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유행, 풋웨어 브랜드가 주력하는 요소는?



트위스티드X/맨스 4" 하이커 부츠 (Twisted X/Men's 4" Hiker Boot)
이 방수 기능이 있는 하이킹 부츠는 통기성이 있는 방수 안감과 80% 재활용 폐기 가죽을 사용한 가죽 TWX 어퍼가 사용됐다. 공장에서 발생한 EVA 폼 폐기물 함량 85%인 블렌드85(Blend85) 풋베드와 100% 재활용 PET 에코트weed(ecoTweed) 패브릭을 사용했다.



코디악/코모क्स(Kodiak/Comox) 이렘/제로콜 데저트 하이킹 부츠(Erem/Xerocol Desert Hiking Boot)
사용된 소재에는 폴그레인 가죽, 텐셀 리오셀(Tencel Lyocell) 섬유, 70% 재활용 고무, 브라스 및 코르크가 포함된다. 어퍼에 사용된 가죽은 튼튼하면서도 부드러운 소재로 모든 주요 마모 점에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오보즈/아우젤(Oboz/Ousel)
오보즈의 유명한 여성용 풋웨어 사파이어의 후속 버전인 아우젤은 하이킹이나 공원 산책용으로 디자인됐다. 이 신발은 경량의 단일 밀도 쿠셔닝과 A3 TPU 투피스 새시를 적용해 안정성과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게다가 넉넉한 힐 덕분에 착화감을 배가했다.



킨/하우저 하베스트(Keen/Howser Harvest)
하우저 하베스트는 슬림 디자인 덕분에 신고 벗기가 편안하다. 게다가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공간이 넉넉하다. 무늬가 없는 고무 아웃솔 덕분에 바닥에 자국이 남지 않는다. 또한, 친환경 냄새 방지 기술을 사용해 냄새 관리가 가능하다.



알레그리아/로완(Alegria/Rowan)
친환경 소재를 위한 로완의 디자인에는 내구성이 있으며 방수 기능이 있는 비건 가죽을 사용했다. 러그 아웃솔은 튼튼하면서도 가볍다. 지속가능성이 알레그리아의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이 제품에는 탈부착 및 교체 가능한 풋베드 기술을 사용해 신발 수명을 연장했다.

<건강>
“맨스 4” 워터프루프 하이킹 부츠는 편안함과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한 것이다. 미끄럼 방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형에서 충격을 흡수해 착용자를 보호할 수 있게 쿠셔닝을 적용했다.”
- 트위스티드 X의 리 레몬 세일즈 VP
“코나는 탈부착 가능한 풋베드가 있어 풋베드로 누적되는 발 문제에 도움이 된다. 여러 발 전물가들은 관절염과 족저근막염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옴 신발을 추천하고 있다.”
- 나옴의 아이릿 렉스 레비 VP
“이 컬렉션은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부드러운 양면 재활용 웨빙이 특징이다. 걷기는 건강의 주요 요소가 됐다. 이 제품은 편안함과 기능성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장거리 걷기에 완벽하다.”
- 단스크의 켈시 제인 풋웨어 디자인 디렉터

부분의 고객층을 수용하는 C 너비와 같다. 우리는 발볼이 넓은 풋베드를 제공하며 이는 다른 브랜드 슈즈의 D 너비와 같다.”
- 알레그리아의 메건 골드 디자인 디렉터
“머저 GTX는 라이프스타일과 아웃도어 활동을 결합할 수 있는 신발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다. 모노랩(MONOWRAP) 프레임은 애슬레틱하면서도 대담한 디자인이지만 부드러운 색상이 스트리트웨어에도 적합하다.”
- 로와 부츠의 피터 섉스 총괄 이사



에코/바이옴 2.1 x 컨트리(Ecco/Biom 2.1 X Country)
이 스포티한 디자인의 풋웨어는 크로스 컨트리에 적합하다. 바이옴 기술을 사용해 발이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했으며 해부학적 착화감을 준다. 낮은 프로파일 덕분에 착용자는 지면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다. 포렌(Phorene) 미드솔은 에너지 반동을 전달한다.



코디악/코모क्स(Kodiak/Comox)
코모क्स는 직장에서의 미끄럼과 열 내성을 위한 비브람 TC4+ 화합물이 특징인 아웃솔을 사용했다. 폴그레인 방수 가죽은 아웃도어 요소로부터 발을 보호해준다.



프로펫/콘라드(Propet/Conrad)
콘라드는 방수 기능을 가진 부티에다 스카치가드(Scotch-guard)가 특징이다. 게다가 이중 깊이/탈부착 가능 풋베드를 사용해 맞춤 교정구를 넣기에 충분하다.

컨버스 x 스투시, 신상품 ‘척 70 하이’ 스니커즈 출시

미국 의류 브랜드 스투시와 컨버스가 새로운 스니커즈 컬래버 제품을 출시했다. 두 브랜드는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처럼 클래식 디자인인 척 70(Chuck 70)으로 협업 작업을 진행했다. 유명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인 스투시와 아이코너도 같은 풋웨어 브랜드 컨버스는 지난 6월 블랙 색상의 척 70 하이 컬래버 제품을 출시한 이후 다시 힘을 모

아 신상품 “서프맨(Surfman)”을 제작했다. 스투시 x 컨버스 척 70 하이 “서프맨”은 핑크 색상의 프리미엄 대마 캔버스 어퍼가 특징이며 스투시의 아이콘인 “서프맨” 로고가 신발 측면에 스탬프 되어 있다. 그리고 공동 브랜딩을 통해 표시한 한쪽, 화이트 색상의 가황고무 툴링이 바닥에 자리하고 있다.

“밝은 핑크 색상의 척 70 디자인은 두 브랜드 컬래버레이션의 시그니처인 대마 캔버스 어퍼와 높이 솟게 자수 처리를 한 레트로 “서프맨” 그래픽을 표시한 윗가죽이 특징” 이라고 컨버스는 설명했다. 한편, 스투시는 컨버스와의 파트너십 외에도, 컨버스의 모회사인 나이키와 함께 작업한 에어맥스 2013 디자인을 출시했다.

스투시 x 컨버스 척 70 하이 “서프맨”은 110달러로 출시됐다.

출처: Footwearnews.com



STONY
INTERIOR & FURNITURE
Living & Fashion Furniture

“Comfort is Our Priority”

PT. STONY CHROME INDONESIA
BIZLINK Citra Raya Blok P, 03/22
Jl. Pemda Tigaraksa, Sukamulya, Kec. Cikupa, Tangerang Banten 15710
Telp. 021 5966 0131 | Email. pdo1987@gmail.com, stchae1472@gmail.com

SUNTECH

Making AUTOMATION FACTORY

with **SUNTECH's** Smart technology!

Business Instruction

01. A/S & Spare parts

- One-stop Service 체제 가동
- 각종 재봉기 및 자수기 부품 판매

02. Sewing Machine

- 신발 현장에 최적화된 재봉기 판매
- 현장 합작 특수 재봉기 개발 및 판매

03. Embroidery Machine

- 현장에 맞는 다양한 HEAD 자수기 개발 및 판매
- 신개발 원단에 최적화된 특수 자수기 및 옵션 장치 개발 및 판매



04. Special Machine

- 생산 현장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요청 특수 기계 개발 및 판매
- 생산 현장의 슬립화를 위한 다공정 가능 특수 기계 개발 및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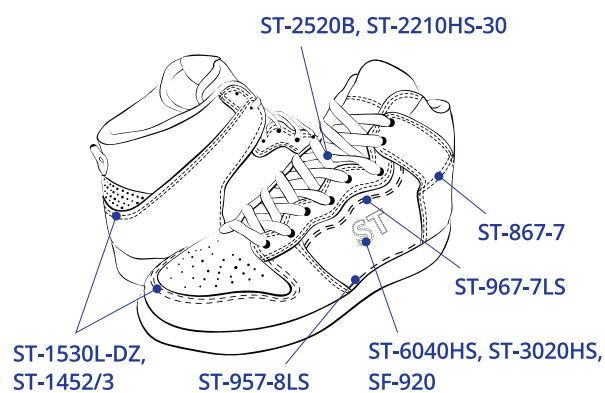
05. Automation Device

- 다양한 Automation Device 개발로 생산 효율성 증대

06. IoT System & Device

- IoT DEVICE 및 SYSTEM 개발로 생산 현장의 빅데이터 생성 및 저장. OEE, KPI 등 각종 데이터 산출 가능한 시스템 개발 및 판매

APPLICATIONS



NEW PRODUCTS



2-칼라 컴퓨터 패턴 재봉기
ST-3020HS-C2, ST-6040HS-C2



3-칼라 컴퓨터 패턴 재봉기
ST-3020HS-C3



자동 땀폭 조절이 가능한 롤러 포스트 재봉기
ST-666H, ST-777H



신발 생산 전용 자수기
SFT-10616



CIKAKANG BRANCH

Ruko Podium Blok A No. 1 &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TEL +62-21-2210-4936~7
H.P +62-811-911-2248 +62-811-179-2248

JEPARA BRANCH

Jl. Jepara-Kudus, Desa Rengging
RT.006 RW.001 Pecangaan, Jepara
TEL +62-291-7520-288
+62-811-911-2284 (Local)